

## 인천시민의 행복수준과 출산의향

이미애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이정용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양종민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남숙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원

### 배경과 목적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최근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
- 행복과 출산 의향의 상관성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행복도가 높은 집단이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도가 높고, 출산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이 요구됨
- 2024년 인천서베이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행복수준과 행복한 삶을 위한 11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제안

- 시민의 행복 수준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된바,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중심으로 설계
-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의 행복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행복 수준과 출산 의향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도출
- 둘째, 행복한 삶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기본 생활 보장 체계 강화, 주거 안정성 제고, 고용 안정성 및 출산 친화적 제도 개선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
- 셋째, 출산 의향 제고에 효과적인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교육·복지, 신체·건강, 공동체 및 사회 통합 영역 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이 필요

# 1 출산과 혼인 관련 지표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 ■ 출산과 혼인 관련 지표의 변화

- 전국 기준,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24년에 0.75명으로 다소 반등했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인천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하락 폭이 더 컸으나 2024년에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서울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

[표 1] 지역별 합계출산율 변화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1.48	1.09	1.23	1.24	0.84	0.81	0.78	0.72	0.75
인천	1.47	1.08	1.21	1.22	0.83	0.78	0.75	0.69	0.76
서울	1.28	0.93	1.02	1.00	0.64	0.63	0.59	0.55	0.58
경기	1.63	1.18	1.31	1.27	0.88	0.85	0.84	0.77	0.79

(단위: 명)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2) \*: 2024년은 추정치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24년 12월 인구동향」, 통계청

- 혼인 관련 통계의 경우 2023년에 반등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총혼인건수와 조혼인률은 2000년대 이후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 전국 평균 기준, 총혼인건수는 2000년 33.2만 건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2022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건수가 급감했다 2023년부터 회복세를 보임
  - 조혼인률(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의 경우,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000년에 7.0건에서 2022년에 3.7건까지 감소했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인천의 경우 총혼인건수는 2000년에 약 1.8만 건에서 2022년에 1.1만 건까지 감소하다, 2024년에 1.3만 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혼인률의 경우 2000년에 7.7건에서 2022년에 3.8건까지 감소했다 2024년에 4.6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표 2] 지역별 총혼인건수 변화

(단위: 건)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32,090	314,304	326,104	302,828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인천	17,857	16,515	17,407	17,118	11,574	10,881	10,849	11,621	13,223
서울	78,745	71,286	70,466	64,193	44,746	37,012	35,752	36,324	42,471
경기	69,160	72,431	78,471	73,950	57,814	54,658	54,178	54,221	62,629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표 3] 지역별 조혼인률 변화

(단위: 건)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7.0	6.5	6.5	5.9	4.2	3.8	3.7	3.8	4.4
인천	7.7	7.0	6.9	6.5	4.7	3.9	3.8	3.9	4.6
서울	7.1	6.4	6.4	5.9	4.0	3.7	3.7	3.9	4.4
경기	7.6	6.8	6.8	6.0	4.4	4.1	4.0	4.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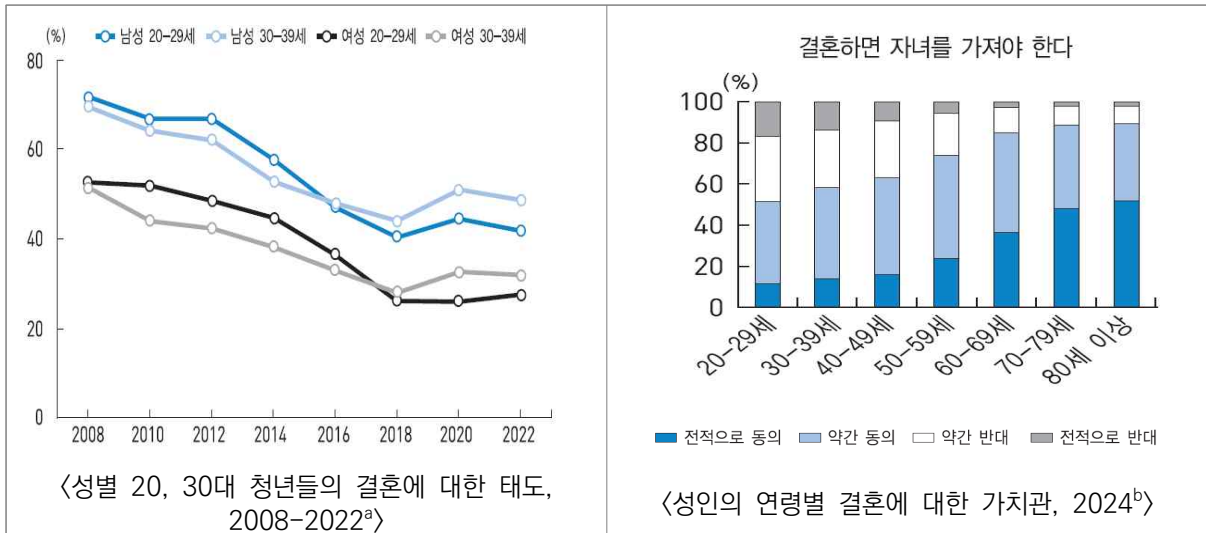
주: 조혼인율 = (연간 혼인건수 ÷ 당해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 출산과 혼인 관련 사회적 인식의 변화

-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대~30대 청년층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
  - 결혼과 관련된 통계청 사회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남성(20~30대)의 경우 2008년 약 70%가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2022년 50% 미만으로 하락
    - 여성(20~30대)의 경우 결혼의 긍정 인식 비율은 2008년 50%대에서 2022년 약 30%로 더욱 큰 폭의 감소 추세
  - 출산과 관련된 통계청 사회조사(2024)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전체 동의율이 2018년 51.5%에서 2024년 51.3%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24년 기준, 연령대별 '전적 동의' 응답 비율은 20대 11.1%, 30대 13.8%, 40대 15.6%로 결혼과 출산의 필연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보여줌

[그림 1]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자료: a)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b)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통계청

### ■ 행복과 출산 의향간의 관계

-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민과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의향에 대한 파악과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특히, 한국과 같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출산 의향과 이러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교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출산을 변화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책이 개인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함
-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며,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긍정적인 관계성을 입증하고 있음
  - Parr(2010)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개인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출산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행복이 단순히 현재의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
  - Mencarini 등(2018)의 7개국 비교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이 출산 확률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저출산 사회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는 경제적 지원,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전통적 개입 수단과 더불어 행복 증진 전략이 인구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또한, 출산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가 출산 의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Ajzen과 Klobas(2013)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출산 의향 분석에 도입하며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통제의 세 가지 요인이 행동 의도를 매개한다고 주장함
    - 행복은 개인의 태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출산 의향을 강화시킬수 있음
  - 이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녀 양육을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압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음
- 결국,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양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
  - 고소득 국가일수록 행복-출산 의향의 상관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경제적 안정이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행복의 질적 요소가 재생산 결정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임(김다윤·김종섭, 2023)
  - 이러한 국가들에서 행복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더 나은 환경과 더 행복한 주변 여건에 대한 욕구가 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 수준의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 인천서베이를 활용한 행복과 출산 의향간 관계 분석

### ■ 인천서베이 개요

- 인천서베이는 인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시민체감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시 통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 방법): 대면 면접조사
  - (조사 대상): 인천 거주 시민 2,219명(2022년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군·구별로 할당)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1월 15일
-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자 중 20~45세 950명을 분석 대상에 활용
    - 가임기 연령대 집단의 출산 의향을 살펴보기 위해 20~45세 인구 집단만 분석에 활용
  - 성별 구성은 남성 474명(49.9%), 여성 476명(50.1%)으로 균등한 성별 분포 확인됨
  - 연령대로 30대가 375명(39.5%)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며, 20대 359명(37.8%), 40대 216명(22.7%) 순으로 분포되어 20~30대가 전체의 77.3%를 차지
  - 자녀유무 항목에서는 자녀 없음 584명(61.5%), 자녀 있음 366명(38.5%)으로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과반수 차지
  - 주택소유 여부는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527명(55.5%), 소유한 응답자가 423명(44.5%)으로 무주택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취업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805명(84.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비취업자는 145명(15.3%)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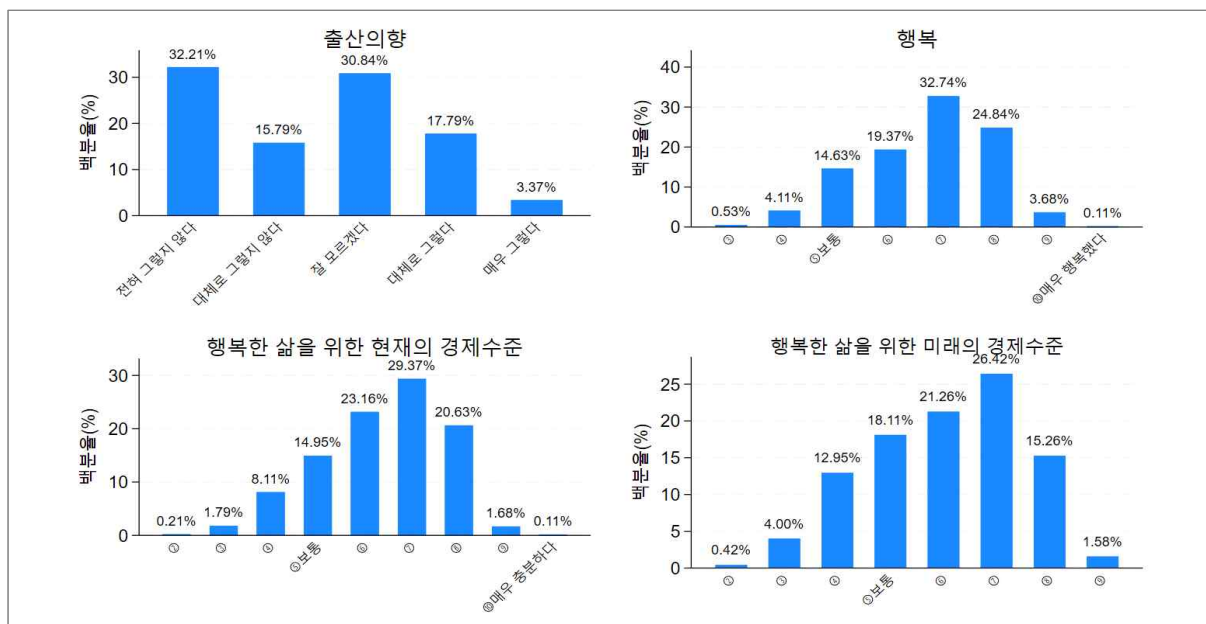
[표 4]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50	100
성별	남성	474	49.9
	여성	476	50.1
연령대	20대	359	37.8
	30대	375	39.5
	40대	216	22.7
자녀유무	있음	366	38.5
	없음	584	61.5
주택소유 여부	없음	527	55.5
	있음	423	44.5
취업유무	취업	805	84.7
	비취업	145	15.3

## ■ 인천시민의 행복과 출산 의향

- 인천시민의 행복과 출산 의향,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의 경제수준과 미래의 경제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출산 의향과 관련하여 "귀하는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 행복과 관련하여 "귀하는 어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다?"라는 문항을 사용
  - 현재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의 경제적 수준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 미래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앞으로 귀하의 경제적 수준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
- 인천시민의 행복과 출산의향에 관련된 인식의 응답분포는 [그림 2]와 같음
  - 20-45대 인천시민의 출산 의향(5점 척도)은 평균 2.44로 중간값인 3점보다 낮아, 출산 의향이 낮은 수준임
    - 응답 분포에서도 48% 정도의 응답자가 출산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 행복 수준(10점 척도)은 평균 6.69로 중간 이상이며, 비교적 긍정적인 범주인 6점부터 8점 사이에 집중적으로 응답이 분포되어 있음
  -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 경제수준(10점 척도)은 평균 6.39점으로 중간 이상이며, 응답자 분포가 6점부터 8점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의 경제수준 전망(10점 척도)은 평균이 6.04로 현재의 경제 수준보다 낮으며, 응답분포가 5점부터 7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의 경제 수준에 대한 전망이 현재의 경제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 출산의향 및 행복과 관련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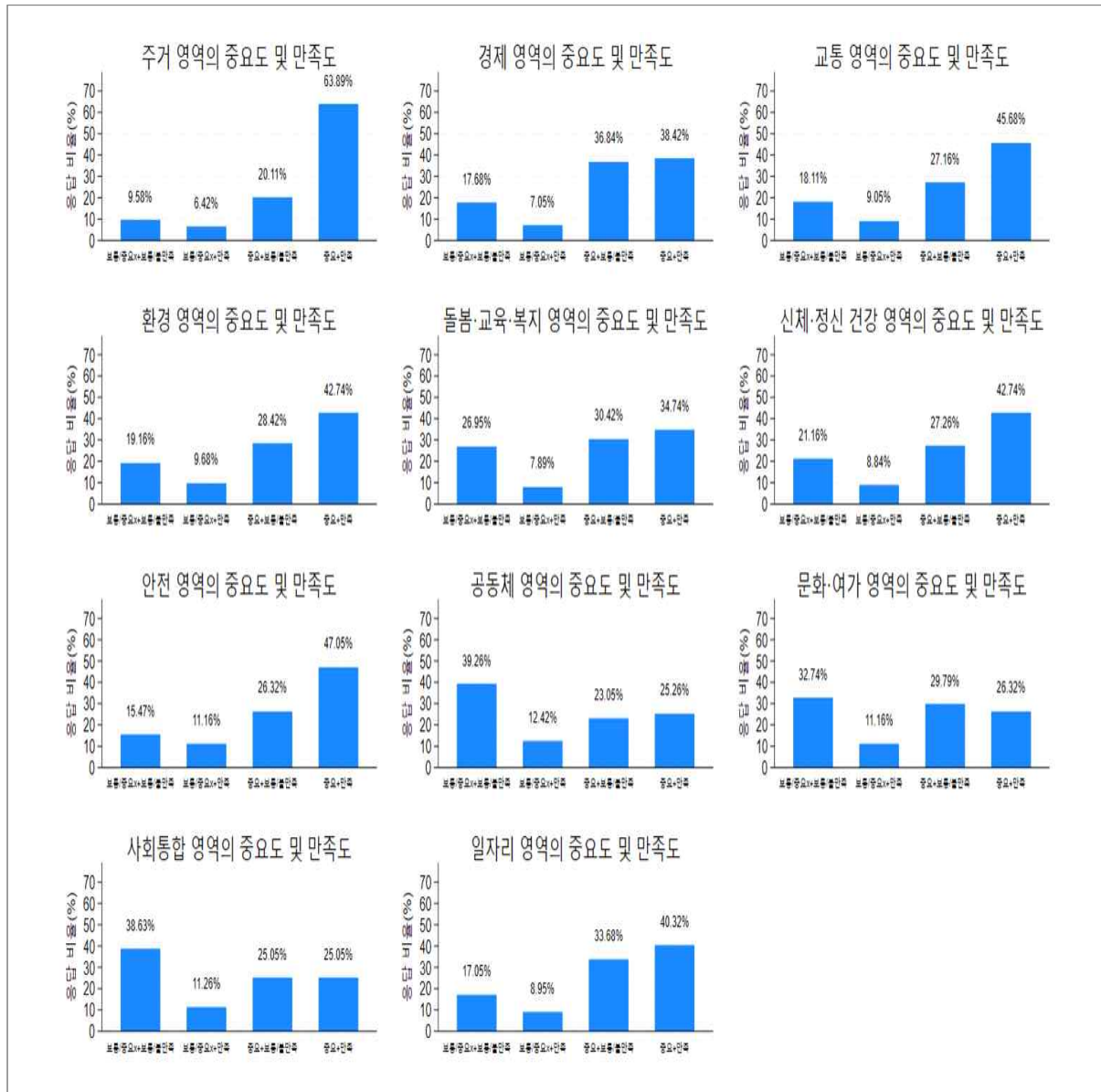


## ■ 행복한 삶을 위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 경제, 돌봄·교육·복지, 신체·정신 건강, 안전, 공동체, 문화·여가, 사회통합, 일자리 등 11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
  - 중요도와 만족도는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군·구)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
    - 중요도는 5점 척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보통을 하나의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로 그룹화하고,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을 하나의 범주(중요함)로 그룹화함
    - 만족도는 5점 척도를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을 하나의 범주(보통/만족하지 않음)로 그룹화하고,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을 하나의 범주(만족함)로 그룹화함
- 행복한 삶을 위한 11개 영역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주거, 안전, 교통 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반면, 공동체, 문화·여가, 사회통합 영역은 중요성 인식이 낮고, 경제, 돌봄·교육·복지, 일자리 영역은 중요성은 높지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주거 영역은 중요함+만족함 비율이 63.89%로 전체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중요+보통/불만족, 중요+만족의 합) 비율이 84%에 달해 응답자들이 주거를 행복한 삶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경제 영역의 경우 중요성 인식은 높으나(약 75%), 중요+보통/불만족 비율이 36.84%로 높아 경제적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요+만족 비율은 38.42%로 주거 영역보다 현저히 낮음
  - 교통 영역은 중요+만족 비율이 45.68%로 양호한 수준, 중요도 인식도 72.84%로 높은 편
  - 환경 영역은 중요+만족 비율이 42.74%로 준수하나, 중요+보통/불만족 비율도 28.42%로 개선 여지가 있음
  - 돌봄·교육·복지 영역은 중요+만족(34.74%)과 중요+보통/불만족(30.42%)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됨
  - 신체·정신 건강 영역은 중요+만족 비율이 42.74%로 양호하나, 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비율도 21.16%로 높아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전 영역은 중요+만족 비율이 47.05%로 높은 편이며, 보통/불만족 비율(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중요+보통/불만족의 합)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임
  - 공동체 영역은 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비율이 39.26%로 매우 높고, 중요+만족 비율은 25.26%에 그쳐 중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여가 영역 역시 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비율이 32.74%로 높고, 중요+만족 비율은 26.32%에 불과해 중요성과 만족도가 모두 낮은 편

- 사회통합 영역은 전체 영역 중 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비율이 38.63%로 가장 높고, 중요+만족과 중요+보통/불만족 비율이 각각 25.05%로 동일하게 나타나 중요성 인식이 가장 낮은 영역임
- 일자리 영역은 중요+만족 비율이 40.32%로 양호한 수준이나, 중요+보통/불만족 비율도 33.68%로 높아 일자리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그림 3] 행복한 삶을 위한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 ■ 행복과 출산 의향 간의 관계성

- 인천 시민의 행복과 출산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 및 미래의 경제 수준은 출산 의향에 긍정적, 가구소득은 출산 의향의 부정적인 관계를 보임<sup>1)</sup>
  - 모형 1(행복)을 살펴보면, 행복감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0.0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2(행복, 가구소득)를 살펴보면, 행복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0.116)을 더 크게 나타냈으며, 반면, 가구소득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높은 소득 계층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 인식이 더 클 가능성을 시사
  - 모형 3(행복, 가구소득, 현재 경제수준)은 행복감보다 현재의 경제수준이 출산 의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임
    - 행복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경제적 인식을 통해 매개될 수 있음을 시사
  - 모형 4(행복, 가구소득, 미래 경제수준)는 행복감과 미래 경제수준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임
    - 이는 장기적 미래 경제 전망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줌.
- 통제변수(주택소유, 성별, 자녀유무, 취업유무) 중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출산 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실제 출산 행동의 현실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5] 출산 의향과 행복 간의 관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행복	0.092** (0.030)	0.116*** (0.031)	0.056 (0.034)	0.070* (0.033)
가구소득		-0.052* (0.021)	-0.059** (0.021)	-0.057** (0.021)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 경제수준			0.119*** (0.032)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경제수준				0.094*** (0.028)
주택소유(기준: 없음)		-0.124 (0.082)	-0.146+ (0.082)	-0.147+ (0.082)
성별(기준: 남성)	-0.111 (0.075)	-0.097 (0.075)	-0.093 (0.074)	-0.094 (0.074)
자녀유무(기준: 있음)	0.785*** (0.077)	0.791*** (0.076)	0.805*** (0.076)	0.795*** (0.076)
취업유무(기준: 취업)	0.188+ (0.105)	0.168 (0.106)	0.152 (0.105)	0.171 (0.105)
절편	1.372*** (0.218)	1.616*** (0.232)	1.304*** (0.245)	1.389*** (0.240)
사례수	950	950	950	950
R-squared	0.109	0.123	0.136	0.133

\*\*\* p<0.001, \*\* p<0.01, \* p<0.05, + p<0.1

1) 출산 의향과 행복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을 실시함.  
(종속 변수) 출산 의향, (독립 변수) 행복,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 경제수준,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경제수준, (통제 변수) 가구소득, 주택소유, 성별, 자녀유무, 취업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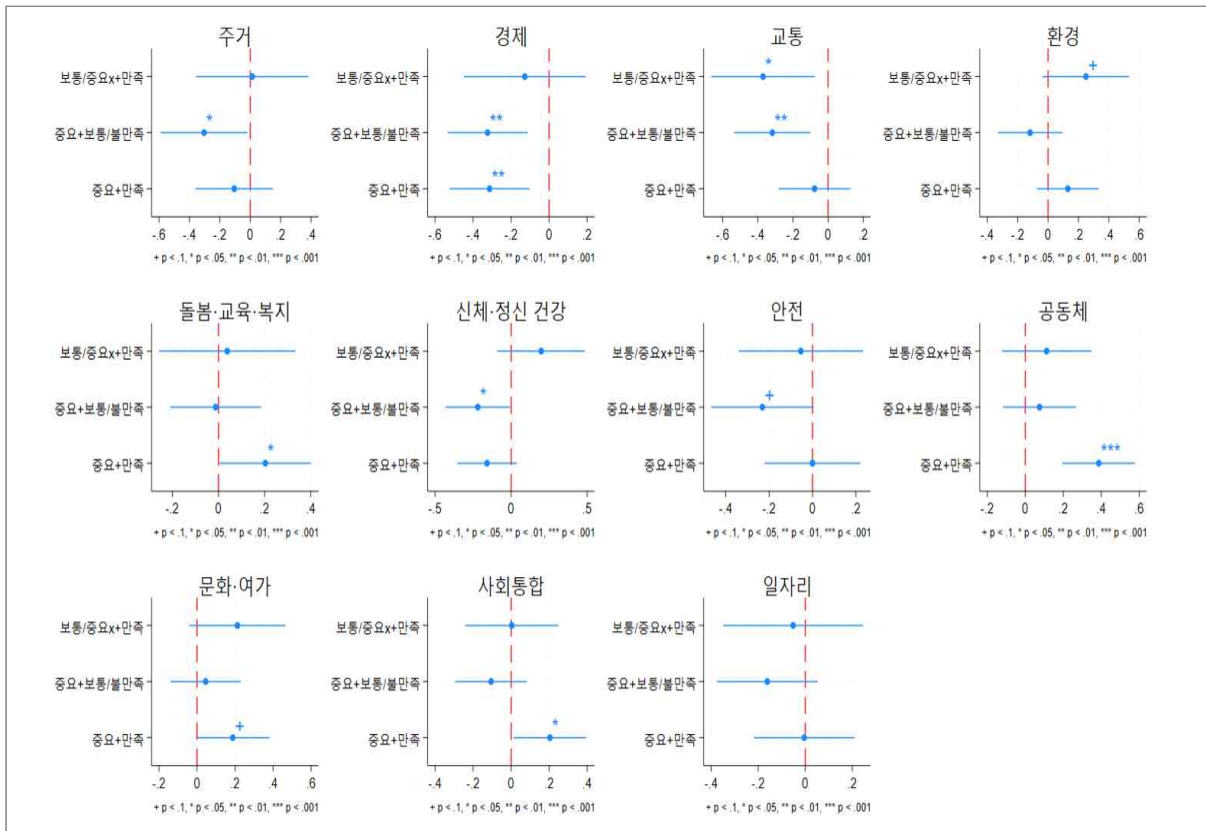
## ■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와 출산 의향 간의 관계성<sup>2)</sup>

- 주거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보통/불만족 범주는 출산 의향이 낮음
  -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군·구)의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주거 환경이 보통/중요하지 않고 보통/불만족한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음을 의미함
  -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에 대한 보통/불만족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보통/불만족 범주와 중요+만족 범주는 출산 의향이 낮음
  - 이는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가 보통/중요하지 않고 보통/불만족한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음을 의미함
  - 한편 경제 환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경우에도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줌. 이는 위의 회귀분석 결과의 소득수준과 출산의향과의 부정적인 관계와 동일한 결과
- 교통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와 중요+보통/불만족 범주는 출산 의향이 낮음
  - 교통 영역 역시 중요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통 환경이 보통/중요하지 않고 보통/불만족한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음을 의미
- 환경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보통/중요하지 않음+만족하는 범주가 출산 의향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유의수준 0.1)라고 볼 수 없음
- 돌봄·교육·복지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만족 범주의 출산 의향이 높음
  -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교육·복지 영역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신체·정신 건강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보통/불만족 범주는 출산 의향이 낮음
  - 신체·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중요하지 않고 보통/불만족한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와 정신건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줌

2)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보통/중요하지 않음과 보통/불만족 범주를 기준범주)와 출산 의향과의 관계성에 관한 OLS(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을 실시함. (종속 변수) 출산의향, (독립 변수)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통제 변수): 행복, 가구소득, 주택소유, 성별, 자녀유무, 취업유무

- 안전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보통/불만족 범주는 출산 의향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유의수준 0.1)라고 볼 수 없음
- 공동체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만족 범주의 출산 의향이 높음
  - 출산 의향과 관련하여 주거나 일자리와 같은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관계적 만족도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문화·여가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만족 범주는 출산 의향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유의수준 0.1)라고 볼 수 없음
-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중요+만족 범주의 출산 의향이 높음
  -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유대와 연대감과 같은 관계적 만족도가 출산 의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자리 영역의 경우 기준 범주(보통/중요하지 않음+보통/불만족 범주)에 비해 출산의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

[그림 4]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와 출산의향과의 관계성에 관한 분석결과



주: 기준 범주: 보통/중요하지 않음 + 보통/불만족

3

행복과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의 행복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개발
  - 시민의 행복 수준은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중심으로 설계
    - 주관적 웰빙과 객관적 삶의 질 지표를 통합한 평가 체계 개발
    - 국제적 모범사례(OECD 방법론 등) 참고하여 지역 특성 반영
    - 각 영역별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지표 병행 측정
    - 매년 결과 공개 및 시각화 대시보드 운영
    - 시민의 직관적 이해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 제공
  - 시민 행복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행복수준과 출산의향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도출

■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 및 미래의 경제 수준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기본 생활 보장 체계의 강화
  -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기본생활 필수 요소(주거, 의료, 교육 등) 접근성 보장
  - 다양한 가구 구조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취약계층 중심 현금 지원, 바우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 지원 사용처를 필수 생활 영역에 한정하여 정책 효과 극대화
- 주거 안정성 제고
  -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지원 등 주거자금 지원의 합리화 및 체계화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필요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 정책을 통한 주거 접근성 향상
- 고용 안정성 및 출산 친화적 제도 개선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환경 조성, 직업의 안정과 경력 단절 예방
  - 직장 내 모성보호, 복귀지원, 자녀 돌봄 제도, 가족 친화 경영 등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

## ■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반영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개발

-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 경제, 돌봄·교육·복지, 신체·정신 건강, 안전, 공동체, 문화·여가, 사회통합, 일자리 등 11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정책 개발 필요
  - 앞선 분석 결과, 주거, 경제, 교통, 돌봄·교육·복지, 신체·정신 건강, 공동체 및 사회통합 영역 등에서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지리적 접근성과 서비스 통합성 동시 고려
  -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특수 상황 집단의 정책 만족도 향상
  - 의료,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필요를 한 곳에서 충족 가능한 환경 조성
-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
  - 청소년기, 청장년기, 고령기 등 생애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 지역 주민의 쉬운 신체활동 인프라 접근성 보장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개입 방식 도입
- 공동체 형성 및 사회 통합 강화
  - 자신의 지역사회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포용을 통한 공동체 사회적 자본 축적
- 시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 개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참여 형태 지원

## ◆ 참고문헌

### [학술지/단행본]

- 김다운·김종섭. (2023).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Fertility: A Country-level Analysi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50(2), 171-185.
-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 Mencarini, L., Vignoli, D., Zeydanli, T., & Kim, J. (2018). Life satisfaction favors reproduction. The universal posi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childbearing in contemporary low fertility countries. *PloS one*, 13(12), e0206202.
- Parr, N. (2010). Satisfaction with life as an antecedent of fertility: Partner+ Happiness= Children?. *Demographic research*, 22, 635-662.

### [보고서]

-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23). 한국의 사회동향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동향
- 통계청. (2024). 2024년 12월 인구동향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최계운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http://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